

World Trends Around Packages

패키지를 둘러싼 세계의 동향

모리 야스마사 / (주)패키징스트레이티지 재팬 사장

I. 도입

5월 4일부터 7일 동안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6년 만에 열린 interpack 2023 3일차에 세계 포장기구(WPO) 주최로 열린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World Star Packaging Awards 2023)’가 진행되었다.

주지의 사실처럼 월드스타상은 세계 10여개국에서 응모가 있었으며, 그 수는 포장업계 경쟁 가운데 세계 최다 응모수를 자랑한다. 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패키징 상이기도 하다. 5월 6일 시상식에서는 세계 각국의 많은 수상자가 참석하였다. 파이널리스트 가운데 가장 우수한 패키징 기술에 수여되는 프레지던트 어워드(President Award)의 금, 은, 동 3점과 오랜 시간 세계 패키징 발전에 공헌해온 포장인을 대상으로 선출된 생애포장공로상(Lifetime Achievement Award in Packaging)이 발표되어 각각 기념 메달이 수여됐다.

II. 세계에 존재감을 드러낸 일본 패키징 기술

세계 패키징 업계가 주목한 이번 시상식에서 일본은 커다란 존재감을 발휘했다. 2023년 월드스타 상에서는 식품, 음료, 헬스·퍼스널케어 등 18개 부문과 특별상의 서스테이너빌리티, 세이프 후드 등 4개 부문에서 총 228점(중복수상 있음)이 입상하였지만 일본은 참가국 중 최다인 26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고 영예인 프레지던트상은 이날 발표되어 일본 코카콜라사의 라벨리스 PET 보틀이 동상을 획득했다.

그리고 생애포장공로상은 일본인으로는 최초로 아리타기술사 사무소 소장인 아리타 씨에게 수여됐다. 그는 근래 세계에서 유일인의 명예인 수상자가 되었다. 같은 이름의 패키징스트레이티지 재팬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일본의 포장 전문가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90세를 넘긴 지금도 일본과 해외를 묶는 교섭자로서 제 활약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리타 씨는 2005년 미국 포장전당(Packaging & Processing Hall of Fame) 입성도 성취하였다. 미국 포장전당은 1970년 시작됐으나 일본인은 아직 3명밖에 선출되지 못했다. 아리타 씨에 이어 세계의 패키징 업계에서 활약하는 일본 포장인이 배출되는 것을 기대한다.

수상이 발표되고 나서 아리타 씨에게는 해외의 미디어로부터 인터뷰가 쇄도했다. 본지를 통해 IPPO(국제포장프레스협회) 회장 Steven Pacitti 씨와 아리타 씨의 인상적인 인터뷰를 소개한다.

IPPO: 생애 포장공헌상을 수상한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리타: 지금까지 해온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일본과 해외 사이에서 패키징의 gate-way 기능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곳에서 인적 교류를 통해 서로의 기술 소개나 기업 간 연계를 지원해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세계에 인정받은 것은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네트워크를 다음 젊은 세대에게 이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IPPO: interpack 2023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진 1] 생애포장공헌상을 받은 아리타 씨(우)와 세계포장기구 프 레지던트 Pierre Pienaar 교수(좌)



아리타: 화석 유래 버진 플라스틱을 감축하기 위한 리사이클이 용이한 포장 재료로의 전환입니다. 배리어성을 부여한 모노매터리얼 포장재나 종이 재료로의 전환은 interpack 2017에서는 그 징후뿐이었지만, 이번에는 착실하게 그것

들이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다음의 interpack 2026까지 대부분의 슈퍼나 드러그 스토어에 진열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IPPO: 플라스틱 포장업계 사람들에게 조언하신다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리타: 플라스틱 포장 재료의 2030년 리사이클 목표 달성을 위해 플라스틱 업계는 아직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밸류체인 의 여러 장면에서 업계는 하나 하나의 이노베이션 축적이 필요합니다. 사용이 끝난 패키지를 확실하게 회수해 리사이클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포장의 경우는 재생재의 푸드 그레이드의 인증 시스템이나 식품 폐기 발생 억제 의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에는 용기·포장 리사이클에 의 액세스를 용이하게 하는 On-pack labeling도 빠질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 전체로 보면 재생 재료를 순환해 사용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IPPO: 일본 플라스틱 포장업계에서 지금 무엇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세계의 다른 나라 들은 일본에서 무엇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리타: 1990년대 초기 도시 쓰레기 처리지 부족 위기를 접한 일본은 감용 방법으로 소각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대부분이 소각(에너지 회수를 포함)돼 리사이클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2021년 현재 25%). 2023년 플라스틱 신법이 시행되어 용기포장 이외의 플라스틱 제품도 포함하여 지자체가 회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효성을 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고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본 포장업계에서는 파우치에 의해 플라스틱 감축이나 배리어 재료(EVOH, 투명 배리어 필름)와 같이 긴 시간에 걸쳐 쌓아온 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음료용 PET 보틀의 높은 회수율을 가능하게 한 사회 시스템이 있습니다.(2021년 현재 86%) 연포장의 충전 포장 기계나 제대기 등의 기계는 이번 interpack에서도 많은 일본의 기계 브랜드들이 출전하였습니다. 기술력과 경쟁력에서도 우수합니다.

IPPO: 당신이 지금 존중하며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노베이션 또는 기술이 있습니까?

아리타씨: 구체적인 기업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보다는 순환형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합 관계에 있는 기업간 연포장의 CEFLEX나 종이 패키지의 4evergreen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 협동하고 있는 것에 높은 존경의 마음이 있습니다. 일본이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 포장업계가 WPO에서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